



▲ 16일 채플에서 스웨덴 말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앙상블로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다니엘 헨선(Daniel Hanssen)의 지휘로 '천국의 전당에서'와 '노르닥 카프리치오', '여름 스위트'를 비롯해 '병장한 하나님'과 '여름의 찬송가' 등을 멋진 연주와 화음, 서정성 짙은 아카펠라로 전하며 북유럽의 순도 높은 선율을 전해 주었다. 1925년 창단된 말뫼는 스웨덴의 4대 오케스트라에 속할 만큼 명성을 얻고 있다.

JULY 2025

VOL. 279

KÓKKOS 7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AI-BRC 첫 학기, 대부분 긍정적 반응

‘강요가 적절한가? 배운 것이 없다’ 등 부정적 응답도

2025-1학기 AI-BRC를 수강한 학우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세부 응답 표 참조). 이 과목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성서학과 신입생의 필수과목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AI학부 1학년들의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성서학과의 BRC가 성경지식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면 AI-BRC는 성서 읽기를 기반으로 내면 성찰을 통한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있다.

57명의 수강생 중 성찰 저널지를 제출한 학우는 23명(41.07%)이다. 설문항목은 ① 무엇을 배웠나? ② 읽기, 본문

설명, 내면 성찰 등 세 과정 중 어떤 과정이 가장 유익하였나? ③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④ 개선할 점은? 등 4가지 항목이었다.

무엇을 배웠나? 문항에서는 자기성찰을 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소통, 교제하는 것이 좋았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지만 종교적인 강요가 적절한가? 배운 것이 없다는 등의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읽기, 본문 설명, 내면 성찰 등 세 과정 중 어떤 과정이 가장 유익하였나? 항목에서는 ‘내면 성찰’의 과정이 가장 유익하였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본문 설명’을 통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었다.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항목에서는 실생활에서 삶을 돌아보는 자세를 기르고, 규칙적 생활, 성경읽기 습관화 등을 들었다. 개선할 점에는 강의 일수를 줄였으면, 학점을 올려 달라, 너무 이른 시간이다, 토론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적고 있다.

담당 강규성 교수는 “AI-BRC는 교수자나 학생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모든 학우들이 함께 해주어 잘 마칠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어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 모두 소중한 것이다. 나는 그들의 성찰을 존중하여 제안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AI-BRC 성찰저널

2025. 06.10

문항1 : AI-BRC 무엇을 배웠나			문항4 : AI-BRC 개선할 점			
긍정적 응답	자기성찰의 시간	10	삶	이타(利他)적 마음	3	
	친구들과 대화와 교제	5		규칙적 생활	1	
	성경에 대한 깨달음					
	규칙적 생활	2	학교	집중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	1	
	AI를 보는 눈 갖게 됨			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		
	성경 구절과 나와의 연결					
부정적 응답	배운 것이 없다	2	가정	식구들과 소통 늘렸다	2	
	강요가 유익할까?	1		없다		1
	더욱 부정적이 되었다.					
문항2 : 읽기, 본문설명, 내면 성찰 중 어떤 과정이 유익했나?						
읽기	하루의 마음가짐을 결정	1	유익	부지런히 생활하겠다	2	
본문설명	성경 이해 도움	4		내면 성찰하여 lms에 올리는 부분 성서 기반으로 삶을 돌아보는 활동 읽기, 본문설명, 내면 성찰이 체계적이었다 다양한 질문		
내면성찰	삶을 돌아보다	16				
기타	유익 없다	3				
문항3 : 실생활, 삶, 학교, 가정 등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						
실생활	삶을 돌아보는 시간	6	부족	강제가 아쉽다	2	
	매 순간을 성경 구절을 연결	2		없다		
	성경읽기 습관화 도전	1		수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1
	용기와 희망			강의 일수 줄였으면		2
	올바른 AI 사용법 생활화			학점 3학점으로		1
건의			오전 공강 많아 불편	1		
			시에 초점을 맞춘 BRC	2		
			너무 이른 시간	1		
		토론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KBU임팩트봉사단 발대식

학생 100명과 교직원 21명이
봉사활동



▲ 발대식을 마친 단원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KBU임팩트봉사단(단장 장인순) 발대식이 26일 저녁 7시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앞으로 1년 동안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성서대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더 나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계 각처에 파견되어 진행할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이다. 발대식에는 학생, 교수 직원 등 70명이 참석하였다.

KBU임팩트봉사단은 학생 100명과 교직원 21명이 봉사활동을 벌인다. 주요 활동으로는 밀알 캠프(청소년 7월28일~30일 / 어린이 7월31일~8월1일), 밀알 훈련(1~3차 8월18일 ~ 27일)이 있고 그 외에도 성서공동체와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강규성 부총장은 격려사에서 “봉사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지만 노동이 고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섬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은 섬김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단어라 해도 무방하다. 우리의 삶 전체가 봉사라는 인식을 가질 때 사회가 행복의 선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섬김이 모두를 기쁘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장인순 단장은 인사말에서 “1년 동안 우리의 KBU임팩트봉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단원들이 되기”를 소망하였다.

학생과 교직원 대표로 정혜주 학우(영보 4), 양희정 팀장(사무관리팀)이 연단에 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라고 선서 하였다.



설립자 일립(一粒) 강태국 박사

제 27 주기 추모 예배

설립자 일립(一粒) 강태국 박사의 「제27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7월 25일(금) 오전 11시 본교 밀알관 로고스홀에서 거행된다.

인본주의 세속화가 심화되어 가는 기독교 위기의 시대에 설립자 일립은 민족복음화의 일념으로 「제1, 2차 천국운동 50년 계획」을 세우고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등 복음화 운동을 펼쳐 왔다. 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서공동체 모두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 2025년 7월 25일(금) 오전 11시

장소 : 밀알관 로고스홀

“죄의 유혹이 왕의 진미처럼 잘 차려진 유혹과 물욕의 시대에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히 지켜 나가자”

박태수 목사, 1학기 종강예배 설교



▲ 박태수 목사

20일 2025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수 목사가 ‘다니엘의 결단과 축복’(단 1:1~9)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포로가 된 다니엘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두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죄의 유혹이 왕의 진미처럼 잘 차려진 유혹과 물욕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정체성을 견고히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생긴 믿음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확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방학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귀한 걸 준비해 놓으신다. 8월 개강 무렵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걸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저 역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유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권면하였다.

유준하 총학 회장은 “주님의 은혜로 1학기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의 권능 안에서 지성과 영성이 충만해지는 복된 방학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 고수”

BRC 연합 종강예배
최정권 총장



▲ 최정권 총장

1학기 BRC 연합 종강예배가 13일 오전 8시 갈멜관 305호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정체성 확인하기’(벧전 2:9~10) 제목으로 예배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주인공 새끼 오리는 온갖 멸시와 고통에도 좌절하지 않고 견디며 이겨낸 끝에 멋진 백조로 하늘을 비상하게 된다. 우리의 앞길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굴하지 않는 의지를 고수해야 한다. 주님은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효경 조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사명 앞에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학우들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김대범 학우는 간증을 통해 “처음에는 갈등도 많았으나 아침 BRC에서 읽는 말씀 안에서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해주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져야”

20025년 제1차 교직원 연수회



▲ 김덕원 전산지원팀장

2025년 제 1차 교직원 연수회가 30일 갈멜관 305호에서 개최되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나선 김덕원 전산지원팀장은 올해 우리 대학의 정보보완 수준은 83.3점, 개인정보보호도 85.5점을 예상한다며 ‘우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2024년은 84.5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2023년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지난 4월 SK텔레콤의 해킹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학으로는 전북대와 이화여대가 대학생 개인정보유출로 각 6억과 3억의 과징금을 맞았다. 김덕원 팀장은 “항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정보 관리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완 일립행정본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인 의미, 사례를 설명하였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완벽하게 이행함으로 개인(피해자)과 학교에 더 큰 손상을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규성 부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2022-2024)와 계획(2025-2027)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성과평가결과’ 발표에서 우리 대학이 최고의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고회에 앞서 최정권 총장은 “모세가 뽑아 보낸 정탐꾼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보고를 하였고, 백성들은 이에 동조하며 불평하는 잘못까지 범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시 136편)를 생활화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고 권면하였다. 이날 홍콩중앙교회 고든 조 장로는 컴포스 커피차(200만원 상당)를 보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오윤선 교수 정년 퇴임예배

학생으로 교수로 33년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 오윤선 교수

오윤선 교수(기초교양교육과)의 정년감사 퇴임예배와 퇴임식이 4일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퇴임 예배에서 오 교수는 ‘주께로 부터,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롬 11:36)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지난 33년 동안 그가 나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성서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고 설교하였다.

이어진 퇴임식에서 오 교수는 지나온 33년 간(1992년~2025년) 제자 양육의 삶에 회고하며 그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80년대 초 설립자와 만나 학창 시절을 보냈고 교수로서 오늘까지 학교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협력하며 수고해 준 학교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퇴임소감을 전하였다. 그는 “몸은 떠나지만 학교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하였다.

최정권 총장은 “33년간 학교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다한 여정에 감사하고 오 교수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이어지게 해 달라”며 오 교수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오은주 교수가 “예수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밝히는 복음전도자의 삶”을 기도하였고 이성아 교수는 특송으로 정년 퇴임을 축하했다.

‘쉽,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

최정권 총장, 대학원 종강 예배



▲ 최정권 총장

대학원 1학기 종강예배가 16일 오후 6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이 ‘쉽 우리가 잘 못하는 일’(마가복음 6:30~37)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정권 총장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 보고를 받고 잠시 쉬라고 말씀하였다. 병 고침과 기적 등의 사역을 경험하였는데 혹시 모를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있다. 한 목회자가 삶의 끝자락에서 건강과 가족을 돌보지 않은 걸 가장 후회했다고 들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술관 방문과 산책의 쉽을 통해 그림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산책으로는 삶을 다시 흥미하게 된다. 이번 방학에 쉽을 가져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며 재충전하는 창조의 원리에 참여하라”고 전하였다.

김숙정 원우(회계)가 1학기를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원우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신입교직원 밀알훈련」 7월 10일~11일

성서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 전수

「신입교직원 밀알훈련」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포천밀알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이 훈련은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우리 대학 설립목적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복음전도자 양육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훈련 기간 동안 휴대폰, 시계, 컴퓨터 등 일체의 기기가 수거 보관 된다. 훈련 내용은 새벽 기도로 시작하여 예배와 노동, 둘레길 산행, 야간 성경 묵상, 간증 등으로 이어진다. 신입생 대상 밀알훈련과 같으나 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 훈련에는 신입교수 3명과 직원 18명이 훈련생으로 참여하며 봉사자 7명, 운영팀 9명 모두 37명이 함께 한다.

2025년 3차 이사회 개최

이우근 목사(중앙성서교회 담임) 이사 선임



▲ 이우근 목사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이사장 강우정) 제3차 이사회가 16일 오후 3시 밀알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이우근 목사(중앙성서교회 담임)를 이사(개방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임기 만료된 반중원 이사(수원침례교회 담임)를 연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사회는 이밖에 교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1차 추경안도 심의 후 통과시켰다.

이사들은 회의에 앞서 기도회를 갖고 학교의 정체성 확립과 불신 재학생의 구원을 위해, 학교의 자생력 확보 및 갈멜관 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성서학과 MT ‘꼭씩 즐겼수다’



성서학과 MT ‘꼭씩 즐겼수다’가 6월 30일과 7월 1일 가평 꿈에그린펜션에서 열렸다. 예랑학회(부학회장, 서효경 3) 주관 MT는 개회 예배로 시작, 물놀이, 삼겹살 파티로 이어졌으며 울동과 은혜로운 찬양, 신명 가득한 레크리에이션 등 시간을 통해 서로를 밀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MT는 또 청년세대가 겪는 갈등과 비전을 토로하고 신앙인의 처한 현실에 대한 관점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남궁이레(3) 학우는 “이런 진솔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58명의 학우들과 5명의 교수가 참석했다.

사회복지학과 MT 전공과 취업 및 삶의 고민 나눠



사회복지학과 누리학회(학회장 송민희) 주관의 MT가 6월 30일과 7월 1일 대성리 펜션마루에서 진행되었다. 학우들은 조별로 나뉘어 자기를 소개하였고 아이스브레이킹, 놀이와 게임, 바비큐 파티, 장기자랑 등을 통해 우정과 기쁨을 나누었다. 학우들은 밤늦도록 전공과 취업 및 삶의 고민 등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였다.

황은빈(4) 학우는 “친구들과 다양한 이야기와 꿈을 공유하고 우정까지 잘 쌓았다”며 준비팀에 고마움을 전했다. MT에는 3명의 교수와 60명의 학우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신앙과 전공에서 성숙한 인재로 세워지기를”

학부모기도회, 6월 기도회 모임

학부모기도회(회장 추영철)가 19일 오후 복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창현 목사 사회의 기도회에서 학부모들은 우리 대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전도자 양성의 요람이 되기를, 자녀들이 전공과 신앙에서 성숙한 인재로 세워지게 해 줄 것을, 성서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해 줄 것을 뜨겁게 기도하였다. 학부모들은 또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도 목소리를 합하여 기도드렸다. 기도회에는 8명이 참석했다.

박태수 교목실장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 대학이 밀알훈련을 통해 노동과 섬김을 가르쳐 그들이 어느 곳에 처하든지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도록 단련해 왔다. 이 길을 변함없이 추구해 나가도록 기도를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추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학부모 모두가 학교의 운영위원이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서대를 크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명의 학부모가 카톡방에서 매일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다. 기도 모임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6시 45분 복음관 2층 회의실에서 갖는다.

문의 ▲ 교목실 김창현 목사 02-950-5439

이철희 이사 발전기금 5백만 원 후원



▲ 이철희 이사

본교 법인 이사인 이철희 이사(연세대 교수)가 5백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 이사는 “학교가 복음전도자 양육의 사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였다.

이철희 이사는 지난해 3월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서비스연구반(SG6) 부의장으로 선출돼 미래 방송기술과 주파수 연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입직원

사무관리팀 정육환 씨
시설관리팀 조성찬 씨



▲ 사무관리팀 정육환



▲ 시설관리팀 조성찬

사무관리팀에 정육환, 시설관리팀에 조성찬 씨가 입사하였다.

정육환(사무관리팀) 직원은 초당대학교 호텔조리학과를 졸업하고 한우리 외식산업과 엠즈 베이커스에서 근무하였다. “여러 가지로 부족 하지만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학교와 학우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성찬(시설관리팀) 직원은 본교 성서학과를 졸업하였고 아브라함 이주공사, 디자인 인테리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모교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실과 책임으로 주어진 업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포천밀알훈련센터 숲속에서 쉼과 휴식

가족, 소규모 집회 최적지 접근성 좋고 가성비 높아

포천밀알훈련센터는 무덥고 복잡한 일상의 틀을 벗어나 숲속에서 영적인 쉼과 휴식을 위한 최적지이다. 울창한 삼림 속 산책로와 수영장이 잘 구비되어 있다. 접근성도 좋고 가성비도 착하다.



▲ 쉼과 휴식을 위한 최적지 포천밀알훈련센터

▲ 다비드하우스 ▲ 게스트하우스

이곳은 개인과 가족이 함께 쉼을 갖기 적절한 공간이다. 숙소 전·후면으로는 울창한 잣나무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서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좋은 피톤치드로 산림욕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다비드 1개 동 (7~8명), 게스트 2개 동(2~3명)이며 모두 취사가 가능하다.

▲ 이삭 하우스 ▲ 리브가 하우스 ▲ 김영수 기념관

각각 40~70명 전후의 인원 숙박이 가능하다. 소규모 교회 및 단체의 집회 및 세미나 장소로 안성마춤의 공간이다. 김영수 기념관은 자체적으로 세미나와 취사를 겸할 수 있다. 동문 및 가족 할인 적용된다.

포천밀알훈련센터 숙소 주변으로는 직경 40센티에 달하는 잣나무 숲에서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이 압권이다. 수영장은 지하 200미터의 암반수를 용수로 사용하며 30~40명이 즐겨도 혼잡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다. 임도를 걸으며 마주하는 능선 산행은 시야가 탁 트여 멋진 뷰로 최적이고 하얀 수피와 초록이 가득한 자작나무 군락지에 닿으면 색다른 수목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용 문의 02-950-5508(신재윤) / 02-950-5595(권오섭)

감 사



최정권 총장

교정을 떠난 학생들의 빈 자리 위로 잘 자라고 있는 잔디를 바라봅니다. 잔디는 총장의 또 다른 진심입니다. 평소 군데 군데 드러난 잔디를 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교직원 연수회 때 컴포즈 커피차를 보내 주신 고든 조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학교의 교정을 보고 "우리 학교 컴퍼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작고 아름답고 강한 대학에서 아름다움이 푸른 잔디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총장의 편지 주제는 감사입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동조현상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주변 사람들과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불평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조현상이 아니라 감사보다는 불평에 익숙한 것 우리의 죄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 중 열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 주민은 거대한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적 보고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점입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죄된 성향에서 감사보다 불평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롬1:21).

총장의
편지

C.S Lewis가 이런 우리에게 참 좋은 비유를 하나 했는데 오케스트라가 악기 조율하는 것과 우리의 감사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공연 시작하기 전에 일제히 악기를 조율합니다. 무대 전에도 맞추고 왔을텐데 전체가 한번 더 악기를 조율합니다. 감사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속의 악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맞게 내 마음의 소리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성서대학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총장으로 저희 대학의 행정력을 높여 놓은 이사장님의 수고와 제가 무거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 옆에서 도와주신 두 분의 부총장님과 주요 보직자들과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기부자들입니다.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매 달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국내외에서 저희 학교를 와보지 않았고 평소 들어보지도 못한 저희 대학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신앙의 자리인 우리 대학에 대한 감사와 일할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흐르는 샘물처럼 우리 영혼을 적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현광 교수(성서학과)



오수빈(영유아보육학과 3)

헬라어는 살아있다 헬라어로 카페 이름 짓기 프로젝트

“한국성서대학교 갈멜관 증축이 은혜 가운데 완료되었다. 카페테리아를 만들고 이름 공모 중이다. 예쁘고 부르기 좋고 의미 있는 이름을 제안해 보라. 단, 헬라어 이름이어야 한다.”

이번 학기 헬라어 수업 과제였다. 헬라어 카페테리아의 의미, 제안 사유, 성경적 연관성과 신학적 의미(관련 헬라어 본문 제시), 다른 매장 조사, 기대효과 등을 서술해야 한다. 과제가 부여되자마자 챗 GPT에게 문의하는 학생도 있었다. 아가페라는 이름을 쓰는 맥주집이 있다고 해서 폭소가 터졌다.

3주 후 과제가 제출되었다. 가장 많이 제안된 이름은 조에(생명)였다. 삶과 생명을 누리며 생기를 나누는 장소라는 의미다. 이 외에도 갈락시아스(은하수), 에이레네(평강), 멜리(꿀), 익투스(물고기), 아가페(사랑), 카리스(은혜), 메타(함께), 엘피스(소망), 피스티스(믿음), 판타 타 에쓰네(온누리), 포네(소리) 등 부르기 쉽고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많았다.

멜리 & 아르투스(Meli & Artos)는 꿀과 빵이라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3:8에 나오는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와 요한 복음 6:35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착안하였다. 소텔로(Sotelo)는 구원을 뜻하는 소테리아(Soteria)와 목적을 뜻하는 텔로스(Telos)를 합성한 이름이다. 구원의 목적이란 의미가 우리 학교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제안하였다. 히브리서 5:9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함에 이르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를 추출했다.

사실 헬라어는 어려워져 반복, 반복, 반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어렵고 따분한 데다 복잡하기까지 해서 머리 아픈 헬라어가 꿀과 빵이 되어 우리 입술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것처럼 헬라어를 우리 입에 살아있게 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있게 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서인이 되자.

종강, 마침표가 아닌 쉼표

6월의 캠퍼스는 유난히 분주하다. 도서관에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강의실과 복도에는 과제와 시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학기를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면 어느새 ‘종강’과 마주한다. 종강은 한 학기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자, 우리 모두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 같은 존재이다.

종강의 순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해방감, 아쉬움, 뿌듯함, 그리고 때로는 후회까지. 한 학기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이 떠오르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종강은 단순히 한 학기가 끝났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방학이라는 잠깐의 여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때로는 그동안 미뤘던 일에 도전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를 경험한다. 또 누군가는 그저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종강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바쁘게 달려온 학기 동안 놓쳤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가 된다. 수많은 강의와 과제 사이, 스쳐 지나갔던 우리의 감정들, 관계들과 꿈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삶의 방향을 정비하는 시간을 통해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캠퍼스에 돌아오길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종강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 학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보자.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자신만의 의미 있는 방학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종강, 그 끝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한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담임)

눈물의기도

새벽 어스름 속에 성도들의 기도 카드를 한 장 한 장 펼치고 안수기도를 드립니다. 각각의 카드마다 삶의 무게와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 어머니의 기도 카드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춘기 아들과의 힘겨운 시간,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아들의 기도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제 꿈을 이루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카로운 말과 닫힌 방문 뒤에 숨겨진 아들의 진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녀의 거친 겉모습에 마음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시편 77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가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올려드린 작은 고백 하나 하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간구의 목록을 읊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는 지난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손길,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기억의 기도는 곧 찬송이 됩니다. 탄식이 감사로,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지요? 자녀와의 관계로, 건강 문제로, 또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마음이 무거우신지요? 그럴수록 더욱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눈물로 젖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곧 찬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탄식을 들으시며 모든 믿음의 고백하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시 132

고백성사 - 못에 관한 명상 1 김중철

오늘도 못을 뽑습니다
휘어진 못을 뽑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못이 뽀뽀해져 나온 자리는
여간 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당에서
아내와 함께 고백성사를 하였습니다
못자국이 유난히 많은 남편의 가슴을
아내는 못 본 체하였습니다
나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직도 뽑아내지 않은 못 하나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숨겨둔 못대자리 하나가
소속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ribbeanp0466/222795188441e=1>

‘못’의 외연은 “쇠나 나무 따위로 만든 가늘고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목재를 접합시키거나 벽에 박아서 다른 물건을 걸어 둘 때 쓰이는” 용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못이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원통한 생각을 마음속 깊이 맺히게 하는” 내포적 의미를 담게 된다. 의도적으로 혹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는, 그래서 상대방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원통함이 된다. 그 못은 때로 돌직구로 날아와 꽂히기도 하고, 휘어져 후벼 파기도 하고, 짹짹 할퀴기도 하고, 헐헐렁렁 덜렁거리기도 한다.

못을 뽑아낸다. 매일매일 뽑아내도 아직도 뽑아낼 못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오늘도 못을 뽑으며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의 가슴도 이리 흥하겠지...’ 생각하니 어질어질하다. 무릎 꿇고 하늘을 보니 별이 반짝인다. “별들이 누군가 못을 박았던 흔적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별들이 못구멍이라면 그건 누군가 아픔을 걸었던 자리겠지” (류시화, <별에 못을 박다>) 노래하던 시인의 시구(詩句)처럼, 우리의 아픈 못 자국도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천지인 박대성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59호



경주에 가면 만날 사람은 박대성 화백이다.
6월 말의 경주는 8월의 서울보다 더 더웠고
언덕 위에 자리한 솔거 미술관은 내 몸과 걸음을 지치게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눈으로 본 화가의 그림은 묵직했다.
팔 하나를 전쟁에 내주고 남은 팔 하나로 노인이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공이 들어간 그림 앞에서 나는 물었다.

“왜 이 그림에 끌릴까?”

경주는 탑과 소나무 그리고 무덤의 도시인데 하늘에서 내려본 이 바위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가 그린 바위들은 어릴 때 아궁이에서 꺼내는 숯 모양과 일치되는 점이 많았다.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소나무 가지 끝에 붙은 숯은 유난히 검었고
그 숯으로 신라의 솔거가 그림을 그렸다는데 그 이름의 미술관에서 만난 바위는 검은 것과 흰 것이 하나였다.
팔 하나로 그려진 그림 앞에 두 팔을 가진 나는
그가 그린 바위 위에서 있다.

어르신들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뉴욕의 거장' 전시를 관람하였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복지관

문화예술 나들이

12일 월계복지관 내 한글 교실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정서 환기와 활력 충전을 위한 봄나들이를 오전과 오후 코스로 진행했다.

오전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뉴욕의 거장'을 관람하였다. 도슨트의 안내로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 작품에 대한 정서를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불암산 나비 정원으로 향했다. 데크길이 잘 정비되어 불암산 엘리베이터 전망대까지 불편함 없이 이동, 노원구 전경과 불암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촬영하며 즐겁게 보냈다. 이 날의 산책, 대화, 식사와 사진 촬영은 어르신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총무팀 이은정 주임]

학부모와 함께 우리 동네를 주제로 만든 체험방.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복지관

부모참여 수업

25일 꿈빛 가족은 '우리 동네'를 주제로 부모참여 놀이를 진행했다. 영유아를 혼합연령으로 구성, 체험방을 이동하며 놀이하였다. 요리방에서 꼬마김밥을 만들었고 평소 잘 먹지 않던 채소 맛보기와 물고기 모양의 어묵꼬치도 조리했다. 만들기 방은 와펜과 페브릭펜으로 그림을 그려 하나 뿐인 개성있는 모자도 완성했다. 테마 방은 다양한 가게를 구성하고, 역할극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물건 구입과 판매로 나눠 추억도 쌓았다. 행사는 평소 맛벌이로 자녀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어려운 부모님이 참석해 어린이집도 경험하고, 자녀 간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소중한 날이 되었다. [백합반 강옥경 교사]

성도들이 포천말말훈련센터에서 열린 힐링캠프에서 성과 은혜를 체험하였다.



성서대학교
노원복지관

자연속 힐링캠프

성서대학교교회 성도들은 6월 6일~7일까지 포천말말훈련센터로 힐링캠프를 다녀왔다. 울창한 삼림으로 가득한 센터의 숲속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와 기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숲속 산책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겨 보았고 맛있게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오랜만에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자연의 품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 속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됐다. [박효민 목사]

아동의인성 연마를 위한 미덕 천사 보물찾기가 진행 중이다.



월계지역아동센터
노원복지관

미덕천사 보물찾기

아동센터는 4월부터 6월까지 10회기로 인성연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아동들의 내면에 있는 미덕(美德)을 일깨워 올바른 인성 함양 및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는 '미덕천사 보물찾기'이며 매주 1회씩 총 10회를 진행하였다. 스스로가 미덕의 언어를 활용한 주인공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동들은 52가지의 미덕을 다양한 활동으로 말하고, 쓰고, 찾으며 친구, 가족들의 미덕까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창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며 '미덕의 생활화를 더 실천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유아랑 센터장]

아버가 급식 선생님이로 참여해 식사를 준비중이다.



상계백병원
문영연

아빠의 급식지도

13일 푸른반은 학부모가 아빠 선생님이 되어 급식지도에 참여함으로써, 원아들과 따뜻한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아빠들은 점심시간에 교사들과 급식 배식과 식사를 도우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자율적인 식사 태도 확립에 큰 도움을 줬다.

이날 아이들은 부모님의 식사 지도에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원아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식사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번 활동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소통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인 시간이 됐다. [푸른반 국민지 교사]

2분기 체험 컨셉장 '제주도 관광' 내부전경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제주도 여행

올해 2분기 우리 지원센터에서 개설한 체험 컨셉은 '제주도 관광'이며 영유아들이 지역 문화를 간접 경험하도록 환경을 구성하였다. 감귤, 돌담, 해녀, 제주말,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등 제주도를 상징하는 놀잇감으로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해녀를 모티브로 해산물, 태왁, 해녀 횃집은 열린 놀이환경으로 구성돼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체험실을 방문한 영유아들은 가게 주인과 손님이 되어 해산물 무게를 측정하거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역할놀이에 몰입하며 즐겁게 보냈다. '제주도 여행'은 8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보육전문요원 박지혜]

아빠와 자녀가 다정하게 케이크를 만들며 정을 나누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올바른 양육 교육

13일 어린이집 내에서는 아버지 프로그램 '훈육이란 무엇인가?'와 '아이와 함께 보틀컵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교육은 서울시 가족 프로그램에 따라 조도선 강사가 올바른 훈육을 주제로 이끌었다.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은 어떤 유형의 아버지인지 돌아보게 됐다. 곧이어 아이들과 케이크 메뉴 탐색과 만들 방법을 놓고 소통을 이어갔다. 부자가 함께 만드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에서 행복이 가득 피어났다.

앞으로도 가정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온누리반 교사 강혜진]

병원 역할놀이로 색다른 경험을 즐기는 유아들



를사랑어린이집
민이진

병원 놀이

2일 늘사랑에서는 '우리 동네와 연계한 병원 역할놀이를 진행하였다. 영유아들은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치과, 수술실로 구성된 병원 관련 놀잇감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병원 도구와 공간을 스스로 관찰하고 용도 탐색 과정을 통해 생소한 역할놀이에 흥미가 점점 고조되었다. 영유아들은 의사 가운, 간호사 유니폼, 수술복과 환자복 역할 의상까지 착용하고 또래와 상호작용까지 이뤄냈다. 일상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언어 표현과 소통까지 놀이 영역의 확장도 잘 이뤄졌다.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과 소통을 향상하는 시간이 됐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대원들이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된 피아노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를사랑어린이집
김유진

청춘은 바로 지금

9일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 '청춘은 바로 지금' 대원들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는 피해자들이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내면 회복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주회는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피아노곡이 연주되어 참가자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 참석자는 "좋은 선율의 음악을 듣고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며 예술이 주는 힘을 실감케 했다. 앞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사 류현숙]

「성서대학동기운동」 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5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교회(반세호 목사)	1470만원(운영)	강우정.강 진(이사장)	110만원(운영)
(사)한국성서선교회	1000만원(운영)	교수부(교수상조회)	100만원(장학)
무 명	500만원(운영)	정취진(법인사무국)	100만원(운영)
홍콩중앙교회	343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한민제일교회(주영찬 목사)	120만원(장학)	도서출판현문사	100만원(간호)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15구좌 부설기관	일반
1구좌 구세경 김일준 류요한 용아름 이환기 임삼일 조현석 한경순 허영숙	1구좌 지중배 2구좌 김창환	1구좌 유주연 3구좌 장나혜 20구좌 김신덕	1구좌 김기수 김미라 김삼례 정해숙 2구좌 김윤숙 최지연
2구좌 김재철 안선례 이우진 정옥순	교직원 및 가족	어린양교회	단체 및 기관
5구좌 서명주	1구좌 최미영 하희수 5구좌 양단아 장정순	3구좌 임윤창	5구좌 미사목민교회 사랑샘교회 천성교회
10구좌 백승우	10구좌 조혜경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만원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고대운 광미화 광원근 권순길 구세경 구진경 권영순 권순길 권순웅 권순기 권유철 권정민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기상현 김가영 김남혜 김다솔 김도훈 김동만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우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예진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찬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재현 김정희 김중환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궁화 남범수 남성희 노정현 노하나 노 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문홍 박우진 박순미 박아론 박은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항식 박형택 박혜민 반해민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정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변지윤 서유미 서진희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바울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는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주향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재훈 오현호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유평원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진 이선재 이현익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 진 이진경 이철승 이해렬 이해성 이현석 이현지 이혜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민을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현석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최향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황예린 설애서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양연주 오은희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슬강 이아름 이우진 이유미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나나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소정 최수지 최윤경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함미미 허춘선 홍혜주 황인숙 등대학교회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김성아 나예린 문정원 박윤경 백인애 송지민 심희정 양은성 이동기 이미숙 이상란 이성령 이수진 이연신 이정민 이정윤 이하람 이혜정 임동화 장영정 장영철 전개정 조은경 지중배 한승천 홍정훈 2만원 강은덕 강현중 곽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숙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승희 김정숙 김지영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김효선 문순용 문혜진 박영규 박유순 송동식 신동숙 여진욱 연성희 오영미 유효진 이경민 이동훈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승진 이승찬 이우규 이은영 이혜란 임정용 장영순 전옥순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유승 최정호 함은애 허 정 3만원 박보병 배정주 전희문 최정규 황미숙 5만원 권오길 김명자 김희선 박선희 박인규 손미연 송희경 안중현 윤수호 이재현 이혜영 정주화 정태리 한선희 10만원 박은정 장은정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관하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희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요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이지민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1만5천원	이예람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우종엽 이길순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차주엽 최소린 최양서 최은희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좋은교회
2만원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덕희 김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복녀 김성훈 김승희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유경 김은하 김재원 김장복 김현진 류종열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박인순 박재숙 박정원 박주영 박혜숙 소경숙 송만호 송민규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4만원 김중재 박주는 배정환 신은진 이예원 홍진옥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정근 이지은 최경환 최송희 가학교회 생명의빛교회 성서밀알선교회
		6만원	양연선 정동주
		10만원	김선옥 김정교 김중숙 김진만 류종주 백승우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함평대동교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박예찬
		22만원	성낙표

기부자 명단

2만원	진달래 최미영 요시다고조 강민경 김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정호 문지예 민경은 박예진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안 한정숙	3만원	고윤정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운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유수연 윤혜진 이소연 추연진 하희수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길형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전영호 현우석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김정원 고미숙 권용준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성이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홍소운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웅기	13만원	김중환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덕현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한진호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25만원	이강중 임지영	30만원	박태용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정휘진	110만원	강우정·강 진	500만원	무 명	부설기관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박제하 송유정 유주연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호한나	2만원	진양희	3만원	구세란 권효진 문유나 박미라 박전순 변송이 안미희 오윤아 유정현 장나혜	5만원	박연희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월계지역아동센터	7만원	김선화	10만원	박빛나 장수진 조지신	15만원	권정아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5만원	오동준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에 윤인호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회	4천5백원	강태호 주일감	9천원	박지숙 오경모 이경한 정종승	1만원	강경태 오경원 이기는 이대영 이대환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권은정 김문정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일선A 김지윤 김현미 김혜련 김희자 김화현 민영빈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인숙 박주형 박천순 박태수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용정자 유부자 윤재필 이무현 이소정 이영희 이정숙 이정자 이종숙 이주현 장기영 장은정 장진희 장갑순 정나영 최영태 최인숙 한성실 한순애 황서린 황시은	2만7천원	최요한	3만6천원	강유진 김덕현 김동석 김배열 김인자 박 선 반해빈 반해성 심화심 오치숙 윤도진 이경미 이관영 조정선 허진순 현호민	4만5천원	김근열 김하준 김효정 무 명 박은경 유형창 최강희	5만4천원	김현석 반세호 이숙영 이정임 최선희	7만2천원	김유미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김용희 김원태 노봉환 박세건 서수희 이경신 이은실 임성일 전명진 최대만 한진호	10만8천원	송재철	18만원	최순남	1470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2만원	금춘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서점김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정유광 홍성호	어린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양교회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박문수	3만원	왕송희	5만원	표길홍	장자교회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욱 강영애·신한성 이중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 김순자	15만원	이혜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중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사랑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임숙자 정해숙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법식 최서영 최은실 황영수 한국인재인증센터	2만원	강명욱 강상래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민석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장문석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김옥례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4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짱 /바르고복된교회/별방교회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출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스즈	5만원	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사랑샘교회 /에밀레드컬/천성교회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10만원	(주)비디나라 /(주)이레드&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업(주) /만나교회 /상록교회/성북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창평교회/평안교회(신병수)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인천제2교회	30만원	(주)주 안	50만원	동서환경(주)	100만원	교수부/도서출판현문사	120만원	한민제일교회	343만원	홍풍중앙교회	100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	소계(20250521~20250620)	69,036,220	누계(20250301~20250620)	248,254,9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성서대학교 6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25,220,000원)			
한국성서선교회	10,000,000	/	100주년기념선교회 10,000,000 / 이철희(법인 이사) 5,000,000
박태용(교직원)	200,000	/	임정용(재학생) 20,000
약정 후원자 (합계 21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2,520,000원)			
5구좌	이혜영(학부모), 박인규(학부모), 성정자(일반)	/	2구좌 김정숙(학부모), 김희선(학부모), 김재철(동문)
일시납 누계(2025.3.1.~2025. 6.20) 69,377,700원 / 약정자 누계(2025.3.1.~2025.6.20) 175구좌 연간 납입예정액 21,000,000원			